

신규확진 2주일 日평균 40.6명...완치율 뚝 50명기준 위태

직전 2주일의 2배 수준 증가...지난달 27일부터 확진자>완치자 수도권 소규모 집단 발병, 이태원서 탁구클럽까지 곳곳서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2주일 동안 일평균 40.6명으로 집계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핵심 기준인 '일평균 50명 이하'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직전 2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22.6명(총 316명)과 비교하면 약 2배로 많았다. 이 같은 확산세를 이어가면 조만간 2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일 동안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40.5명으로 40명선을 넘어섰다.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은 '16명(5월 25

일)→19명(26일)→40명(27일)→79명(28일)→58명(29일)→39명(30일)→10명(31일)→35명(6월1일)→38명(2일)→49명(3일)→39명(4일)→39명(5일)→51명(6일)→57명(7일)'을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다.

신규 확진자 수가 큰 변화를 보인 시기는 5월 27일이다. 전날 91.5%였던 완치율이 이날부터 하락세로 바뀌었다. 이후 완치율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7일에는 89.6%로 90% 아래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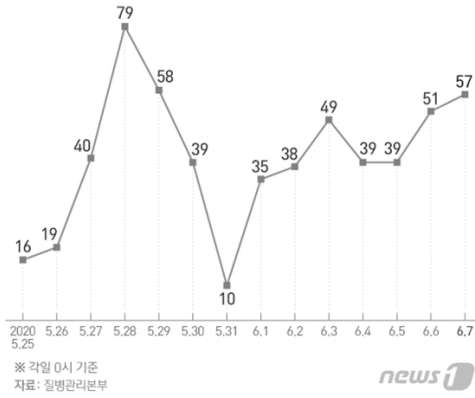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부터 완치자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때문이다. 당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이었던 반면 격리해제 수는 20명에 그쳤다. 5월 27일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534명이며, 이를 일평균으로 나누면 44.5명으로 50명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최근 2주일 동안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주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 5월 27일 신규 확진자가 완치자보다 많아지면서 치료 중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증가세가 확인해졌다.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도 지난달 29일 55명 이후로 27명(30일), 15명(31일)으로 3일 연속 감소했다가 '30명(6월1일)→36명(2일)→46명(3일)→33명(4일)→34명(5일)→43명(6일)' 등 30~40명대를 계속 유지했고, 7일에는 53명으로 50명대로 올라

최근 2주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단위: 명



섰다. 이는 이태원에서 불붙은 수도권 집단발병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인천 개척교회,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건강용품 다단계 판매업체 리치웨이, △수원 큰나무교회, △양천구 탁구클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

어서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57명 지역 현황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은 27명, 인천 6명, 경기 19명이다. 이외 지역은 대구, 울산, 충북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고, 검역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체 누적 확진자 1만1776명의 지역은 대구 6887명, 경북 1383명, 서울 974명, 경기 934명, 인천 279명, 충남 147명, 부산 148명, 경남 124명, 충북 61명, 강원 58명, 울산 53명, 세종 47명, 대전 46명, 광주 32명, 전북 21명, 전남 20명, 제주 15명 순이다. 이외 검역과정 누적 확진자는 547명을 기록했다.

누적 의심 환자 수는 101만2769명이며, 그중 97만4512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2만 6481명이다.

최이슬 기자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북 선을 넘어 기념 전시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전시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준비위)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토크콘서트, 기념전시, 평화통일 대회 등을 준비했다.

이재용 운명 가를 영장심사 법적공방...예고편부터 팽팽

승계위한 주가조정 공방...檢 '호재성 정보' 이용의심 삼성측 "시세조정 결코 없어...李 관여, 상식 밖 주장"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팽팽히 맞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고 본다. 이런 행위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의 인지, 관여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 측은 이에 시세조정은 결코 없었고, 이 부회장 관여 의혹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수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사방' 조주빈 재판 이번 주 본격화

2번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공판...피해자 증인신문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일당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조씨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조씨, 조씨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등 3명이다. 이들은 이날 모두 출석할 예정이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다.

앞서 조씨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법정에 나왔다.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 협박과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요 혐의는 부인했다.

조씨는 2회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파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조씨의 범죄수익은 묶여 있는 상태다. 법원은 지난 4월 수사기관이 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씨가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에 대한 몰수·부대



보전을 인용했다.

같은 날(11일) 오후 4시에는 조씨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 재판도 형사합의30부가 맡고 있다.

천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3번째 공판에서는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절차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오는 12일 오전에는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공익요원 최모씨(26)의 첫 재판이 열린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